

지식재산처, 어린이 지식재산 체험시설 개소

- 키자니아 특허심판원 개소, 디자인권 모의심판 체험 운영 -
- 어린이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높일 것으로 기대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어린이 직업체험 주제공원 키자니아 서울(서울 송파구)에 특허심판원 체험시설을 개소하여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 참여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 어린이들은 가상의 디자인권 심판 사례를 체험하며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. 디자인 분쟁은 어린이도 자주 접하는 일상용품, 캐릭터 등을 둘러싸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참여 활동은 어렵게 보이는 지식재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사례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디자인 침해에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내용으로, 어린이에게 친숙한 소재인 문구점, 캐릭터 카드, 팬 상품 등으로 구성됐다. 참여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하고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확인하는 디자인권 모의심판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의미, 특허심판 절차, 공익변리사의 역할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.

키자니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쟁과 특허심판이라는 다소 낯선 소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활동으로 풀어냄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지식재산처는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“내가 떠올린 참신한 생각과 같은 지식을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지식재산”이라며 “많은 어린이가 키자니아 특허심판원에서 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키자니아 특허심판원 개요(사진은 행사 후 배포)

담당부서	지식재산분쟁대응국 디자인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이은정 (042-481-1503)
		담당자	사무관	주재헌 (042-481-5034)
			주무관	황태영 (042-481-3513)

▶ 영웅 카드 복제사건 - 진짜 디자인은 누구의 것일까?

- (개요) 문방구 할머니의 손자가 디자인한 영웅 카드를 문구 대기업이 무단 복제하여 디자인권 등록 → 할머니가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등록무효심판 청구
- (참여자) 총 6인(심판장1, 심판관1, 공익변리사2, 피청구인 측 변리사2)
- (진행) 어린이들이 심판 중 카드 디자인 비교*, 누리 소통망(SNS) 게시일자 등 증거 자료를 텔레비전 화면으로 직접 확인**하며 모의심판 진행
 - * (디자인 유사여부 확인) 카드를 직접 비교하며 형태·구성 등 유사성 판단
 - ** (창작 시점 확인) 누리 소통망 게시일자 등 매체 증거를 통한 증거 확인 체험
- (기념품) 지식재산처 캐릭터 지우개

키자니아 특허심판원 외관



시설 내부

